정보

Franz Liszt: Mazeppa, S. 100
작곡가: Franz Liszt (1811–1886)
작품명: Mazeppa, S. 100 (교향시 제 6번)
장르: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교향시
작곡 시기: 1851–1854년
초연: 1854년 4월 16일, 바이마르 궁정극장, Franz Liszt 지휘
헌정: Princess Carolyne zu Sayn-Wittgenstein
IMSLP: https://imslp.org/wiki/Mazeppa,S.100(Liszt,_Franz)
Cambridge 연구: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nineteenth-century-music-review/article/away-away-franz-liszts-mazeppa-and-the-bonds-of-freedom/9A49BC29BF0A0C1D438AB8F19B25B6EB

Franz Liszt의 Mazeppa는 한 남자가 야생마에 묶여 질주한 끝에 살아남아 지도자와 영웅으로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관현악으로 그린 단악장 교향시다. Victor Hugo의 시와 Byron, Ivan Mazepa의 전설을 바탕으로
하며, 피아노 연습곡에서 발전한 질주 음형이 관현악의 거대한 행진으로 변한다. 격렬한 Allegro agitato, 회복을 나타내는 Andante, 승리의 Allegro marziale 가 하나의 연속된 서사를 이룬다.

개요
Liszt는 1851년 무렵부터 이 작품을 다듬어 1854년 바이마르에서 초연했다. 그는 12편의 교향시 가운데 여섯 번째 작품으로 Mazeppa를 배치했고, 1856년 초판에는 Victor Hugo의 1829년 시를 프로그램의 배경으로
다시 실었다. 작품 속 Mazeppa는 실제 인물의 전기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 19세기 문학이 축적한 처벌 ·질주 · 구조 ·승리의 이미지를 한 곡에 압축한 주인공이다 .

관현악판의 뿌리는 피아노 작품의 긴 개정 과정에 있다. 1826년 Études en douze exercices의 제 4곡에서 시작해 1839년 Grandes études, 1840년 독립된 Mazeppa, 1852년 Études d’exécution transcendante 제 4곡으로 이어진 재구성에서 질주 음형과 영웅적 윤곽이 남았다. 관현악판은 그 재료를 더 넓은 음역과 행진, 금관의 팡파르로 확장한다.

출판 정보와 판본

S. 100의 초판은 1856년 Breitkopf & Härtel에서 출판되었다 . 1909년 Liszt-Stiftung 전집판과 후대의 Breitkopf 재인쇄, Kalmus 연구용 악보는 서로 다른 출판 계보에 속한다. 피아노 연습곡 S. 139 No. 4와 두 대의 피아노 ·피아노 네 손 편곡은 관현악 교향시와 별개의 판본이다.

초판 서문에는 Hugo의 시와 작품 프로그램이 함께 실렸다. Liszt가 말년에 프로그램 음악을 콘서트홀의
중요한 흐름으로 설명한 글도 남아 있지만, 그 발언은 S. 100의 특정 빠르기나 음량을 지시하는 연주법이 아니다.

소요 시간

전곡은 대체로 15–18분이다. Kirill Karabits와 Staatskapelle Weimar의 녹음은 15분 32초, 역사적 음반 목록에는 14분 20초에서 18분 33초까지의 시간이 보인다. 질주와 행진의 템포, 반복과 판본에 따라 실제 길이가 달라진다.

편성

목관: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일부 자료는 피콜로 클라리넷 또는
클라리넷으로 표기),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3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팀파니, 트라이앵글 , 심벌즈, 큰북
현악: 제 1바이올린, 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금관과 타악기가 질주와 행진의 윤곽을 세우고, 목관은 질주 음형과 서정적인 회복 구간을 연결한다. 피아노는 관현악 원곡에 들어가지 않으며, 하프와 무대 밖 악기도 최종 편성표에는 없다.

단악장 구성

Allegro agitato: 결박된 질주

작품은 Allegro agitato 의 거친 질주로 출발한다. 현악과 목관이 반복하는 빠른 세 음형이 말발굽의 속도를 직접 흉내 내기보다, 한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불안한 운동을 만든다. 팡파르와 금관의 강한 악센트가 그 위에 겹치며, Mazeppa가 야생마에 묶인 채 끝없이 달리는 상황을 제시한다.

질주는 긴장만 높이는 구간이 아니다. 반복되는 음형은 조성과 음역을 바꾸며 점점 더 넓어지고, 주인공이 의식과 육체의 한계를 넘어가는 듯한 극적인 압력을 만든다. 관현악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에도 여러 악기군의 짧은 응답이 계속 이어져, 달리는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다.

Andante: 쓰러짐과 회복

질주가 한계에 이르면 음악은 Andante 로 속도를 늦춘다. 부상과 탈진 뒤의 정지가 길게 이어지고, 낮은 현과 목관이 더 넓은 선율을 나눈다. 앞부분의 거친 리듬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느린 호흡 속에 흔적으로 남아, 주인공이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이 부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서사의 방향을 바꾸는 중심이다. Mazeppa가 살아남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는 순간을 향해 음악은 서서히 힘을 회복한다. 선율이 넓어지고 금관의 울림이 다시 커지면서, 개인의 고통이 집단의 역사로 넘어갈 준비가 된다.

Allegro marziale: 영웅과 행진

마지막 Allegro marziale 에서는 질주 음형이 행진의 리듬으로 변한다. 트럼펫과 호른이 팡파르를 울리고, 현악과 목관이 행진의 걸음을 이어 가며, Mazeppa는 살아남은 희생자에서 Cossack의 지도자로 떠오른다. 같은 음악적 에너지가 더 이상 도망치는 속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

행진은 작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별도 악장이 아니지만, 독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발췌로도 유통되었다 . 전체 교향시에서는 Andante 의 회복과 질주의 기억이 행진에 겹치며, 고통에서 승리로 넘어가는 큰 방향을 완성한다.

질주 음형의 변형

Liszt는 피아노 연습곡에서 이어 온 질주 음형을 한 번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음역과 악기군에 배분한다. 초반에는 현악과 목관의 빠른 움직임으로 들리던 재료가 중간의 정지를 거쳐 금관 팡파르와
행진으로 바뀐다. Cambridge의 연구가 말하는 galloping triplets, fanfare, apotheosis, march-like finale 는 이 변형의 큰 방향을 설명하는 분석 용어다.

문학적 배경과 교향시의 프로그램
Hugo의 시와 Byron의 서사는 Mazeppa를 처벌받은 귀족이자 야생마의 질주를 견딘 인물로 그린다. Liszt의 프로그램은 이 이야기를 장면별 오페라처럼 재현하기보다 , 결박과 질주, 회복, 구조, 지도자로의 부상이라는
상태 변화로 압축한다. Ivan Mazepa의 실제 생애와 19세기 문학 속 영웅상은 서로 다른 성격의 이야기이므로
, 음악의 프로그램을 역사 전기로 읽을 필요는 없다.

Liszt의 교향시는 문학 ·회화 ·역사적 전승을 관현악의 주제 변형으로 바꾸는 장르였다. Mazeppa에서는 빠른 세 음형과 팡파르, 행진이 한 인물의 운명을 따라 변한다. 이는 작품이 어떤 장면을 정확히 묘사하는가보다 , 같은 재료가 고통과 승리의 서로 다른 의미를 얻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초연과 수용

초연은 1854년 4월 16일 바이마르 궁정극장에서 Liszt 자신의 지휘로 열렸다. 작품은 1856년 초판 서문과 함께 교향시 레퍼토리에 들어갔고, 바이마르에서 교향시를 연속적으로 선보이던 Liszt의 지휘 활동과 맞물려 유통되었다.

Kurt Masur와 Gewandhausorchester의 녹음에 대한 John Warrack의 평론은 질주가 힘차게 진행되면서도 자기 과시에 빠지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Zubin Mehta의 뮌헨 실황에 대한 평론은 금관의 힘과 질주의 열기를 부각하고, Kirill Karabits의 녹음은 Staatskapelle Weimar의 지역적 맥락과 관현악 색채를 앞세운다. 이 평가는 각 연주에 귀속되는 청취 관찰이며, 작품의 유일한 해석을 정하지 않는다.

주요 레코딩

- **Kurt Masur / Gewandhausorchester Leipzig (1988년 녹음):** 질주의 추진력과 행진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절제된 힘으로 담은 역사적 녹음이다. 현악의 반복 음형과 금관의 팡파르가 서로 과장되지 않게 연결된다는 평을 받았다.
- **Zubin Mehta /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 (2013년 뮌헨 실황):** 전곡 약 16분대의 실황으로, 거칠고 빠른 질주와 힘 있는 금관이 특징으로 언급된다. `Allegro agitato`·`Andante`·`Allegro marziale`의 세 국면이 뚜렷하게 들린다.
- **Kirill Karabits / Staatskapelle Weimar (Audite, 2018년 녹음):** 전곡 15분 32초로 표시된 녹음이다. Liszt가 활동한 바이마르의 오케스트라가 Hugo의 서사와 질주·행진의 관현악 효과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사례다.

주요 자료

- IMSLP, *Mazeppa*, S. 100: 단악장·작곡 연대·초연·출판·헌정·편성·피아노 연작 관계.
- Cambridge Core, Jamie Meyers-Riczu 연구: Hugo·Byron·시각 자료, 피아노 연작과 교향시, 질주·행진의 상징 해석.
- Audite, *Mazeppa* 디지털 북클릿: 1851년 작품 배경, Hugo와 프로그램 음악, Karabits 녹음과 15분 32초의 시간.
- Wikipedia, *Mazeppa* 교향시: 교향시 제 6번, 피아노 연작의 단계와 서사·구조를 보조하는 개요.
- MusicBrainz, *Mazeppa* S. 100: 역사적·현대적 녹음의 연주자와 지속시간 메타데이터.
- Gramophone, John Warrack의 리스트 교향시 평론: Masur·Gewandhausorchester 녹음의 질주와 균형에 관한 평가.
- Gramophone, Mehta 녹음 평론: 뮌헨 실황의 금관과 질주에 관한 비평.
- Audiophile Audition, Mehta 평론: 세 구간과 2013년 실황의 관현악 설명.
- Audiophile Audition, Karabits 음반 평론: 2018년 Staatskapelle Weimar 녹음과 Hugo·Byron의 배경.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4:48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4:48 UTC by 안준영